

JEWS FOR JESUS™

Australasia Newsletter / 2015년 12월

facebook

twitter

PayPal

For the Christian who wants to learn about Jews and Evangelism

큰 기적이 이곳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 요즘 항공사에서 "즐거운 여행"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낙심에 젖어서 즐거움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무너져 있는 날이었지요?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특히 슬픔을 느끼고 있었을 때, 저는 에릭 메탁사스가 지은 "기적들(Miracles)"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일전에 읽었을 때도 재미있었지만, 책 속의 기적들 몇 개가 저에게는 조잡하게 보였거나, 최소한 너무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잠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이야기가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젊은

여자가 일리노이 주, 스코키라는 도시의 Church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때 트럭에 치여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녀는 살아났습니다 - 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들었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녀를 들어서, 트럭을 비켜가게 하여, 그녀는 전혀 다치지 않고 가던 길을 간 것입니다. 저는 그 도시의 Jews for Jesus 지부를 수년 동안 이끌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그 이야기가 조잡하거나, 최소한 너무 주관적이라고 쉽게 치부할 수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40 년전에 너무 비슷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때 저는 보스턴 음대의 신입생이었고, 예수님을 믿은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저는 Jews for Jesus 보스턴 지부의 리더의 가정과 같이 살면서, 훈련을 더 받으며 여기서 더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San Francisco, USA

하나님께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기적들을 종종 행하십니다. 그 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이나,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의 위대한 사랑을 은밀히 보여주십니다.



사역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뉴튼에 살았는데, 그 동네는 보스턴 중심가로부터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서 뉴튼에 내린 다음, 1키로 정도의 언덕배기를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몹시 피곤한 날, 버스가 저를 정류장에 내려주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데 마침 신호등이 빨간색이었습니다. 내가 좀 서두른다면,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4차선 도로를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은 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바뀌었고, 제가 버스 앞을 지나고 있었을 때 신호등은 바로 초록색이었습니다. 더구나 마침 퇴근 시간대였습니다. 버스 앞을 지나칠 때 저는 바로 옆 차선에서 시속 50km로 돌진하는 차를 보지 못했고, 그 차는 저의 왼쪽 엉덩이를 들이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왼손을 그 차의 앞부분에 대고 공중으로 점프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공중제비를 도는 것처럼, 오른 손에 제 트럼펫 케이스를 들고 말입니다. 저는 번쩍 날아서 나머지 두 차선을 건너서 바로 4차선 도로 건너편에 착지하였습니다. 두 발로 길가의 흙을 밟고나서, 저는 무릎을 꿇고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놀랐지만 전혀 다치지 않은 채로 저는 일어서서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차들이 멈췄습니다. 운전자들은 저를 도와주려고 모두 나왔고, 버스 운전사는 운전석에 앉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 괜찮아요"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며 고개를 흔들고는 천천히 자동차를 타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저는 터벅터벅 제 다락방으로 가는 언덕배기 길을 올라갔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까진 곳도, 굶긴 곳도 없었습니다. 바지 무릎 근처는 착지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무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가 도로 위를 날게 하셨더라도, 저는 전혀 몰랐고, 전혀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어떤 목적을 위해 남겨두신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저를 끔찍한 부상이나 더한 것에서도 저를 기적으로 구해주셨지만, 또한 혼란스러워하며 낙담하고 있던 19살 당신의 딸에게, 바로 제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는, 강하고 인생을 바꿀만한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주신거죠."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의 경험 또한, 상당히 어두운 기간을 사랑으로 같이 하신 것을 저에게 일깨워 주었고, 비행기 안에서의 그 슬픈 날에, 다른 비슷한 이야기를 읽었을 때도 저를 일깨웠습니다. 좀 주관적으로 보이나요? 그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기적들을 종종 행하십니다. 그 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이나,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의 위대한 사랑을 은밀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거대한 기적들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만드십니다.

홍해의 기적은 한 나라를 위한 거대한 기적이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우리 모두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그러한 기적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기뻐합니다. 하누카는 다음의 히브리어 구절로 기념합니다 - nes gadol haya sham, 바로 "큰 기적이 이 곳에 일어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려면, nes gadol haya poh, 바로 "큰 기적이 이 곳(내 마음)"에 일어났다"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더욱 거대한 기적이 2천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굿간에서 태어난것입니다! 예수(예수님)은 우리 사이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알 수 있도록, 예수(예수님)는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죽으시며 다시 부활하셨을 것입니다." 이 큰 기적은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원한 아들의 탄생이 바로 그 큰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그 신비를 가장 먼저 우리가 알기를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캄캄한 밤 같은 우리의 가장 힘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지금 아시나요? 다른 이들이 이 사랑을 필요로 할 때, 이 기적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하누카는 수적으로 열세였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시리아 군대와 맞서 싸워이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ADDRESS INFORMATION

JEWS FOR JESUS AUSTRALIA
E-MAIL: mail@jewsforjesus.org.au
WEB: jewsforjesus.org.au
Phone in Australia: +61.2.9388.0559
ALSO WORKING IN: BRAZIL, CANADA, FRANCE, GERMANY, HUNGARY, ISRAEL, RUSSIA, SOUTH AFRICA, SWITZERLAND, UKRAINE,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VOLUME 19:6, November 2015.

JFJ AUSTRALIA
PO Box 925
Sydney NSW 2001
DONATIONS
Banking in Australia:
NAB: BSB: 082.067
Account: 46.072.8465

JFJ NEW ZEALAND
PO Box 564
Rangiora 7440
DONATIONS
Banking in New Zealand:
BNZ: BSB: 02-0484
Account number:
0106273-00

JFJ SINGAPORE
Bedok Central PO Box 552
Singapore 914606
DONATIONS
Banking in Singapore:
OCBC.
Name: Jews for Jesus
Account # 581.252.897.001

twitter

facebook

Donate now with...
PayPal

We also receive donations from believers via **PayPal, Credit cards, and TT.**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아직도 받지 못했나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원이 각자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400년의 노예생활 이후, 모세가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라고 말하며,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유대인 개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비록 가족의 단위로 움직였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국가적 구원의 일부분으로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국가적이고, 이스라엘에 관계된 것이고, 국제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개인에게 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창. 47.25, 출. 14.30, 민. 10.9, 신. 33.29, 사 3.31, 시 80, 시 106)

그러나 성경은 더욱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개인 구원(히브리어로 “야샤 Yasha”)는 다윗 왕의 시로부터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는 시편 18편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6절에서, 다윗 왕은 명백하게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야샤”되어야 할 곤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116편은 개인 구원을 위한 저자의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개인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 6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분은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사야 63장 1절에서 “구원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분은 6절에서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신 분입니다. 또한 8절에서 “그들이 구원자”가 되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방법 그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은혜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 하셨습니다...그것이 하나님의 증언이며 우리는 그 분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10장 9-10절)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꼭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 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45장 2절) 구원은 유대인들로부터 땅 끝까지 행해졌고, 무려 여기 호주에서도 행해졌습니다. 싱가포르인, 뉴질랜드인, 마오리족, 말레이시아인, 호주인,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오는 이들...모두 주님께 돌아옴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옴”이라는 말은 사실 그 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된 성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면, “돌아옴”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었고, 동일하게 유대인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Ruth Rosen



"도 대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뭐야?"

이 질문은 무신론자였다가 불가지론자로 변한, 제 유대인 친구 나오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녀가 기르던 개가 진정되어서, 그녀가 잘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개가 진정되었습니다. 무려 나흘 밤이나 말이죠. "그리고 말이야" 나오미는 실망해서 말했습니다 - "다시 그걸 가져가셨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평화와 조용한 밤들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개 세바에게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밤이었던 상황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나흘 밤은 뭐였을까?"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잘 모르겠는데."

침묵을 좀 더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흘 밤은 정말 최고였지. 그런데 상황이 나빠졌어. 그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네."

"뭐가 아닌지는 확실히 가르쳐줄게.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가, 나쁜 것을 주시면서 너를 벌하시는, 그런 걸 뜻하는게 아니야."

"정말?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 같은데."

"넌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을 받았지. 그 응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싸인을 보더라"라고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부인하기 어려운 싸인이라서 의심조차 하지 않을 수 없는."

"세바의 나흘 밤이 부인할 수 없는 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나흘 밤이 응답의 싸인인 것이 안 믿겨진다면, 더 큰 싸인이 오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할걸!" 나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준 싸인들을 설명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먹어서, 결국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도록 굳어져버렸습니다.

"내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봐"라고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난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나쁜 일들에 일어나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 (그 모든 나쁜 일들을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주 아주 많았습니다.)

"재미있는 말인데 나오미. 배신감을 느끼다니."

"전혀 믿지 않거나, 관계가 전혀 없는 분에게서 말이지." 그녀는 제가 말하려는 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관계가 없는데 배신감을 느낄 수 없는 법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또한 그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항상 친절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 대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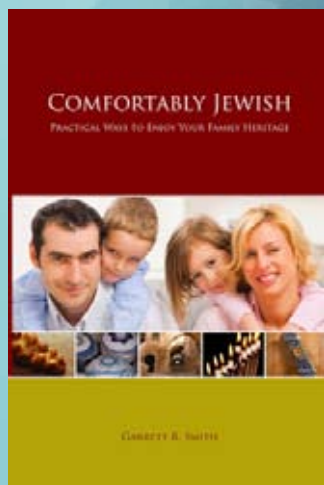
"하나님은 친절하시지만, 우리가 평안을 원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는 방석도 아니지. 우리 소원을 들어주려고 호리병에서 나오는 요정도 아니고. 네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우시지. 자...세바의 나흘 밤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야?"

하나님께서 종종 불신자들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응답들이 고작 소원에 대한 허락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들은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 기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미를 위한 저의 기도이고, 저와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는데 가장 좋은 것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령의 힘을 통해 그 진리가 나갈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신선케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에 대해 항상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심으로서, 그 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때,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대화함으로써 저는, 기도응답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동기이며,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어려운 곳이나 상황 속에서 그 분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OUR CHRISTMAS WISH: JUST IMAGINE...





Comfortably Jewish

If being Jewish is important to you but you are not exactly sure how to express it, then this book is for you. Garrett Smith has a conversational, engaging writing style and in this, his first book, he shares stories and practical tips on several aspects of Jewish life. A must-have resource for families who want to enjoy the Jewish side of life!

Cost \$16



Cuddly Teddy B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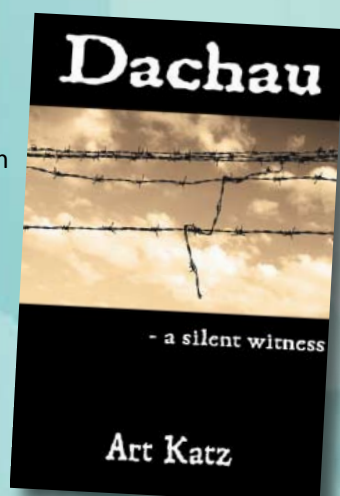
9" long with navy blue sweater embroidered with white Star of David.

Cost \$22

Dachau

Art Katz takes up the subject of the silence of God during one of the darkest moments of Jewish calamity, and insists that the seeming absence of God, when rightly understood, is a key to the true knowledge of His reality and presence. A literary and thought-provoking classic.

Cost \$7



Traicionado

Esta fue la aturrida reacción de Stan Telchin, un exitoso hombre de negocios, cuando su hija le contó que había aceptado a Jesús como su Mesías. Con cruel determinación se propuso demostrarle a su hija que ella estaba equivocada... con asombrosos resultados. Una verdadera y poderosa historia que encaja con la profecía de ser revelado justo frente a tus ojos... **Cost \$14**



All costs include shipping in Australia. For other countries, please add \$4 per item.

Coupon (please print)

ITEM REQUIRED	NUMBER	PRICE PER	EXTENSION
SUBTOTAL			
DONATION TO JEWS FOR JESUS			
TOTAL			

We have more than
700 items available on
jewsforjesus.org.au/catalog

YOUR NAME _____

ADDRESS _____

SUBURB _____ STATE _____

POSTCODE _____ PHONE _____

EMAIL _____

IF PAYING BY CREDIT CARD (AMERICAN EXPRESS, VISA, MASTERCARD ONLY) _____

CARD NUMBER

CARD EXPIRY _____ / _____

Please fill in all spaces. Send coupon along with payment (money order, cheques, credit card) to:
YOUR COUNTRY'S MAILING ADDRESS or Jews for Jesus/ PO Box 925/ Sydney 2001/ AUSTRALIA